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열매소식지 / 2011.5~6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소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아무리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도덕적 수준도 낮다면 살만한 좋은 사회가 아니죠.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운동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장규 공동대표(창립발기인)

기윤실은 지난 20여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기윤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서서 묻습니다.  
‘앞으로 기윤실은 어떤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가?’

“처음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동원 이사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박은조 공동대표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백종국 공동대표

“교회의 회복은 신앙인다운 결단과 실천을 할 때 시작됩니다” 임성빈 공동대표

“이 시대의 절박함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전재중 공동대표

기윤실이  
여러분들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아 가게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이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바로보기



1988~1995 스포츠신문음란폭력성대책운동, 공명선거운동(공선협), 깨끗한 총회운동, 삼품백화점 붕괴 시 기독교연합봉사단 활동  
1996~2006 의료인 정직선언 등 직업윤리회복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담임목사직 세습반대운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운동 2007~2010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포럼, 재생종이사용캠페인

### 2011년 기윤실 주요사업

-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정직윤리운동> 목회자윤리운동, 사회이슈실천운동(전월세값동결운동 등)
-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교회신뢰운동>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재생종이사용캠페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교회운동
-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정치윤리운동> 기윤실 포럼

	기윤실 소개	002
	목차	003
	<b>비전메시지</b> 한기총은 불필요악입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004
<b>특집</b>	<b>깨끗한 교계선거운동 “한기총 해체운동을 전개합니다”</b>	
	한기총 해체운동 경과보고	006
	한기총 왜 해체해야 하는가	008
	· 전문가의견 조성돈, 정운형, 김형국	
	· 네티즌 의견	
<b>더 높은 책무성</b>	<b>전월세 대란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b>	012
	· 기독교인들이 전월세 값 동결을 선언합니다!	
	<b>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세미나</b>	014
	·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전략 정재영	
	· 지역공동체세우기 추천도서	
	<b>공직선거법 개악(改惡), 함께 막아요!</b>	017
	<b>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기금마련에 참여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b>	018
<b>더 깊은 투명성</b>	3·4월 회계보고·후원자명단·신규회원명단	020
<b>더 넓은 공공성</b>	<b>전국기윤실협의회 소식터</b>	024
	활동보고·활동계획	026
	<b>책광고</b> 가치란 무엇인가(짐 월리스/IVP)	027
	<b>재생종이사용캠페인 교회별 종이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b>	028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섬기는' 사람들

이사 이동원(이사장) 강영안 권장희 김양재 김창성 김충환 김홍섭 노영상 문애란 박상은 박은조 방신기 배종석 백종국 손인우 송인수 오정현 우창록 이문식 이의용 이장규 임성민 전재중 정애주 정현구 조홍식 주광순 최상태 한기재 황형택 **감사** 황호찬 **자문위원회** 손봉호(위원장) 김경섭 김대근 김일수 **공동대표** 박은조 백종국 이장규 임성민 전재중 **상임집행위원회** 이장규(위원장) 박은조 백종국 임성민 전재중 김선욱(사회정치윤리운동본부장) 신동식(정치윤리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상원(신학위원장) 장병오(교사모임 전 대표) 조홍식(사회복지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조홍식(공동위원장) 권오용(공동위원장) 조태래(부위원장) 박경수(총무) 고기숙 김동배 김미혜 김수정 김한옥 김현호 김혜란 두재영 두준기 라창호 박경숙 박지영 백은령 송시섭 신산철 신정운 오세란 오창섭 유진현 이기영 이만동 이무영 이상근 이영분 이창희 장동한 최성재 **신학위원회** 이상원(위원장) 김영일 김동춘 김승곤 김은혜 김형민 노영상 문시영 민종기 박득훈 송준인 신국원 신기형 신원하 양낙홍 유경동 이혁배 임성민 정원범 정종훈 조용훈 홍순원 황보환 **교사모임** 윤재윤(대표) **기독교윤리연구소** 강영안(운영위원장) 강진구 김병연 노영상 박노옥 박준용 손화철 송해룡 신국원 정성진 최재덕 최태연 추태화 사무처 사무처장 조재호(조이) 간사 박은애(이든) 박제민(사닌) 박진영(이든) 협동간사 김문 김지숙(솔) 인턴간사 위국명(위) **전국기윤실협의회**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주 진주 청주 **협력단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법률가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뉴스미션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생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직정사역연합 크리스천라이프센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기윤실 열매소식지 2011년 5-6월호 통권 226호  
 소재지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이동원 발행일 2011.5.20 편집인 조재호 편집 박제민 디자인 김문

보고기간 2011년 3월 17일-5월 13일 사이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크로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한기총은 불필요악입니다.

글\_ 손봉호 자문위원장(고신대 석좌교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58년 장로교 합동과 고신이 함께 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지만 방청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 총회장으로 선출된 목사님이 한사코 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 수 없이 여러 사람들이 그분을 들어서 단상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감투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양하는 분과, 또 그분을 모시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열심히 뛰어들었습니다. 총도 맛을 뺐 했지만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만열 교수 등과 '공명선거기독교대책위원회(공선거위)'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선거 부정을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 김준곤 목사, 서경석 목사와 셋이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를 조직해서 공명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기에, 저는 선거문제에 좀 과민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금권선거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에 한기총 해체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 생각합니다. 신사참배나 공산주의의 핍박 등 참 힘든 일이 있었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웠지 한국교회에는 영광스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한국교회의 신망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타락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위기고,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시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짓밟힌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더 큰 치욕이고, 사람들은 더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기총 해체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상당수가 '희망을 갖게 됐다, 속 시원하다,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후회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다시 신앙 생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 신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듯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이 '믿기지 않아서 믿는다'고 말할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믿을 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실은 믿을만한 증인이라는 말이 옳은 번역입니다. 즉, 이 증인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큰일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인이 더 정직해야 하는데, 기원실 조사에 의하면 17.6%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어찌 믿을만한 증인이 되겠습니까?

한기총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도덕불감증이 터져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 민감성, 죄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아

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기총 해체 운동이 없어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임을 도무지 갖지 않아도 되면 왜 해체 운동 하겠습니까. 감리교 사태 등을 봐서도 알겠지만, 한기총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개혁운동도 해 봤지만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복음주의 또는 보수교단의 연합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노회나 총회도 없어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노회나 총회는 좀 다릅니다. 노회나 총회는 상당한 역사를 가진 기관입니다. 약점이 있더라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필요악입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설교하니까 노회에서 설교 금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노회를 탈퇴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손봉호가 왕이 될테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노회나 총회가 시시하니 없애자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한기총은 불필요악입니다.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신교도 보수교단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교나 가톨릭은 한 목소리를 잘 내서 기독교가 손해본다고 하는데 저는 손해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기독교는 특혜를 너무 많이 받아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럴수록 희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정신이 아닙니다. 철저히 손해를 봐야 정화가 되고, 사람들도부터도 조롱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공정한 사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계속 손해를 보면, 왜 기독교를 그렇게 무시하느냐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최소한의 명예를 위해서도 한기총 해체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하니까 제 주위 분들 중 불신자들이 제게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기독교인인 제게 예의를 차리느라 안 하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 미움, 비판 등이었는데, 기독교가 ‘게토화되어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증인을 믿을 수 없는데, 그 증거를 믿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총 해체운동이 꼭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을 하는 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욕하고 압력을 가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호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의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언행에 조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기총 해체로 끝나지 말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약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본 글은 “한기총 왜 해체해야 하는가 서울토론회(4월1일)” 기조발제 내용을 녹취 요약한 것입니다.

# 토론회 **한기총, 왜 해체해야 하는가**

2011년 4월 1일(금) 오전 10시  
청어람 지하소강당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 /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교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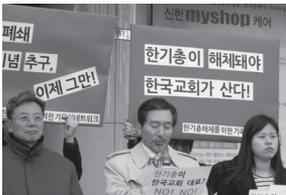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 한기총 해체운동 경과보고

기윤실은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교인 네트워크> 참여단체로 한기총 해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해체운동은 단순히 한기총이란 조직 자체의 해체를 넘어, 돈과 권력지향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성찰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향후 한기총 해체운동의 일환으로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한기총 해체 촉구 목회자 / 평신도 지도자 100인 선언”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기총 해체운동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운동이 되고, 우리 자신의 팔과 다리를 잘라 내는 심정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0 09.30(목) 예상합동 총회, 길자연 목사(이하 길자연)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정  
12.21(화) 길자연, 한기총 17대 대표회장 당선



2011 01.20(목) 한기총 제22회 총회 개회.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 길자연 당선 인준 거부. 이광선 목사(이하 이광선), 정회선언하고 회의를 퇴장. 회의장 잔류 실행위원들, 동의 얻지 않았으므로 정회선언 무효 주장. 공동회장과 명예회장 16명 긴급회의의 개회, 조경대 목사를 임시회장으로 선임해 회의 진행. 이광선, 서기를 통해 1월 27일 오후 2시에 속회 의사를 실행위원들에게 전달. 실행위원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총회 속회, 길자연 대표회장 인준안 처리

01.27(목) 이광선측 실행위원들, 제22회 정기총회 속회. 길자연 인준 무효 결의. 임시 대표회장 이광선

01.31(월) 길자연, 한기총 17대 대표회장 취임

02.09(수) 이광선, 금권 선거 전력 고백. “2009년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해 돈 선거 했다”

02.10(목) 강주성 목사, 금권 선거 양심선언. “작년 합동 총회 중, 길자연 측 홍재철에게 100만원 받았다. 금품 수수자 42명 더 있다.”

02.15(화) 김화경 목사, 금품선거 폭로 “대표회장 선거당일, 길자연측 홍재철에게 50만원 받았다.”

02.17(목)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논란 관련 담화문 발표. “길자연 당선 부인은 불법”

02.18(금) 비대위, 길자연 대표회장직 직무 정지 가져본 신정

02.22(화) 손봉호 교수, 시사저널 인터뷰 “한기총 해체 운동에 나서겠다”

02.25(금) 한기총 임원회, 비대위 29명 징계 안건 통과

02.28(월) 미래교회포럼(예장고신 목회자모임), 성명서 발표. “한기총 해체 촉구”

Daum 아고라에 “한기총 해체를 위한 개신교인 서명운동” 시작

03.02(수)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독교인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한기총에 결의서 발송. 3월 11일까지 응답 없으면 해체운동 시작 예고

03.04(금) 한기총 실행위원회, 비대위 29명 징계 유보. 길자연의 처분에 맞기기로

03.09(수) 비대위, ‘한국교회와 한기총 개혁을 위한 법적책위원회(법대위)’로 명칭변경. 조직 확대

03.10(목) 최요한 목사, 금권선거 폭로 “작년 합동 총회 중, 길자연에게 받은 돈봉투를 목사 4-50명에게 건넸다.”





## 한기총해체운동 | 주요성과

- ① 한기총 법률고문 3명 탈퇴
- ② 한기총 가입단체 중 월드비전, 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 탈퇴, 기아대책기구 행정보류 신청
- ③ 한기총 탈퇴 현의안 의결  
 예장 통합:경북노회, 경안노회, 대구서남노회, 대구동남노회  
 예장 고신:남서울노회, 수도남노회, 경북노회, 전남동노회, 서부산노회  
 예장 합신:충청노회, 경기북노회
- ④ 다음(Daum) 아고라 "한기총 해체를 위한 개신교인 서명운동" 8242명 참여

- 03.11(금) 한기총, 네트워크 질의서 시한까지 무응답  
 ·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 연대" 출범
- 03.1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회 개회 금지 가처분 판결. "한기총이 3월 15일 개회하기로 한 임시총회에서 정계 및 정관 개정을 결의해도 그 효력을 정지한다."  
 · 네트워크, 한기총 해체 운동 시작. 명칭변경: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교인 네트워크"
- 03.16(수) 네트워크, 한기총 해체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해체 촉구 서한 전달  
 · 김화경 목사, 금권 선거 폭로 녹취록 공개 "김자연, 본선에서 10억 원 뿌렸다"
- 03.18(금) 이동원 목사, 트위터를 통해 "한기총 해체 운동 당연"
- 03.21(월) 네트워크, 한기총 소속 법률고문 및 단체에게 탈퇴 요청 공문 발송  
 · 한기총 법률고문 2인 탈퇴. 사직서 제출
- 03.25(금) 이만신 목사, 특별기도회 설교 중.  
 "엄신형 이광선 김자연 목사 금권 선거 했다"
- 03.28(월) 법원, 김자연 대표회장직 직무정지.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
- 03.30(수) 월드비전, 한기총 탈퇴 공식 발표  
 · 김자연, 직무정지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 "대표회장 인준 절차는 적법."
- 03.31(목) 학생신앙운동(SFC) "한기총 해체 운동 돌입" 성명 발표
- 04.01(금) 네트워크, 전국 순회 토론회 "한기총,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서울 개최
- 04.04(월) 네트워크, 전국 순회 토론회 "한기총,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부산 개최
- 04.05(화) 네트워크, 전국 순회 토론회 "한기총,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대구 개최  
 · 예장통합 경북노회 한기총 탈퇴 현의안 채택  
 · 예장통합 포항노회 한기총 행정보류 현의안 채택
- 04.06(수) 예장통합 경북노회 한기총 탈퇴 현의안 채택
- 04.08(금) 기아대책기구, 한기총 행정보류 신청
- 04.11(월) 장기기증운동본부, 한기총 탈퇴 공식 발표  
 · 예장고신 남서울, 수도남, 경북, 전남동, 서부산노회 한기총 탈퇴 현의안 채택  
 · 예장합신 충청노회 한기총 탈퇴 현의안 채택  
 · 예장 목회자 모임 "한기총 사태 해결과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성명서" 발표
- 04.12(화) 예장합신 경기북노회 한기총 탈퇴 현의안 채택
- 04.13(수) 예장통합 대구서남, 대구동남노회 한기총 탈퇴 현의안 채택  
 · 한국기독교교회자협의회(한목협) "한기총 해체하라" 성명 발표

- 04.20(수) 네트워크, 전국 순회 토론회  
 "한기총,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인천 개최
- 04.28(목) 총신대 졸업생 및 재학생 27명,  
 "합동교단의 한기총 탈퇴와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총신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27명의 성명서" 발표
- 05.08(일) 손봉호 교수, 제주기윤실 창립준비 강연회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한기총 해체 역설
- 05.17(화) 손봉호 교수, IVF 학사회 초청 강연회  
 "한국교회 갱신을 생각한다" 한기총 해체 역설

★한기총 해체운동 공식 블로그 가기  
<http://ckout.tistory.com>



# 한기총 왜 해체해야 하는가





조성돈

# 1) 우리 양심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조성돈 본부장(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22년 역사를 가진 한기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기총을 둘러싸고 있던 온갖 루머가 사실로 밝혀졌고,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드러난 일어난 일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들였다는 사람도 있고,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까지 됐나 생각하니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황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침묵하면 한국교회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손봉호, 이동원 등 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나섰을 때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교갱협, 청년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겠다고 할 때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한 모임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피할 수 없는 도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기총은 대표성을 잃었고, 조직의 비대화로 성도들이 참여할 수도 없는 목적의 전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에스겔 5장 7~9절 말씀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입니다. ‘요란하다’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장로가 대통령 됐다고 자랑하는 요란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보다 율례를 안 지키지 않는 비도덕적 집단으로 변하는 것 아닌지요. 이방인들의 규례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론이나 안티기독교 등에게 돌팔매질 당할 때 억울하다고만 하는데, 저는 이것이 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그 심판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공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심성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형 집행위원장(교회개혁실천연대)

## ② 한기총, 왜 리모델링 remodeling이 아닌 해체인가?

**왜들 한기총을 하려고 할까요?** 이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많다면 누가 하려 할까요? 이번 한기총 사태의 당사자인 양측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 감리교 감독 사태처럼 될 가능성이 큼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맘몬(돈)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종교지도자들의 선거과정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반 신앙적이고, 반 성경적입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이나 맘몬이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번 한기총 사태는 자기들 스스로 맘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선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폭로일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의 수준입니다. 당사자인 양측은 서로 개혁하려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진흙탕 싸움입니다.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한기총의 진정한 개혁은 해체뿐입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암세포이며 불필요악이므로 빨리 없애야 합니다. 한기총은 하는 일도 없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욕망을 배설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한기총을 해체하는 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기총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치유하느냐, 더 병들어 죽느냐 갈림길입니다. 한기총 문제는 저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

화상입니다. 우리 안에 맘몬에 대한 해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 ④ 한기총 왜 해체해야 하는가 네티즌 의견

[트위터] <http://twitter.com/cckout>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ckout>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4373>

- \*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해체 동의합니다!
- \* 하나님께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돈으로 세워진 회장에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곳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 \* 한기총이 해체되어야 교회는 삽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 할 수 없습니다.
- \* 종교인은 사회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지탄을 받는 한기총은 일단 해체되어야 합니다.
- \* 참 부끄럽습니다. 한기총의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의 신앙의 모습도 보는 듯 하는데 많이 회개하고 바꾸어 가야겠네요.
- \* 서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모두의 갱생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 \* 서명합니다. 십자가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 죄 집입니다.



김형국 대표목사(나들목교회)

### ③ 한기총, 해체와 그 너머를 향해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종교이탈율도 심각한 상황이 된 지 오래입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온갖 비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기총이 정말 대표성이 있는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기총에서 자꾸 정치적인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는 교회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몇몇 목사들에 의견일 뿐입니다. 이는 기독교 전체 이미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윤리적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역교회 입장에서 한기총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기총 해체를 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단에서, 노회에서, 지역교회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내의 비정상적 권력집중, 재정의 비투명성 등이 지역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당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기도와 사랑이 동반된 문제제기와 비판을 하지 않을 것에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교역자들이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미명 아래 침묵한 것에 회개해야 합니다. 마땅히 실행해야 할 정의에 대해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침묵과 무관심의 카르텔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갱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목회자 몇 명이 나서서 갱신하자고 해서 한기총 없어도 그것은 하나의 헤프닝으로 끝나고 조만간 이름만 바꾼 유사단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킴이 서약하는 운동 제안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나면, 앞으로 한기총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운동으로 전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도우소서! 교회 지킴이들을 지키소서!



-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해체하십시오.
- \*오늘 아침에도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동참합니다.
- \*한기총 해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서명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돌아가야 부정의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젠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변함시다. 실천합시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 \*사실상 기독교의 대표성을 상실한 한기총, 구지 유지될 필요 있나요?
- \*한기총이 해체되어야 교회가 개혁됩니다.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으니 도려내고 짜내야 한다.

- \*한국 개신교 자정 능력 시험 기회!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은 심정으로 이 운동에 동참합니다.
- \*우릴 부끄럽게 하는 한기총 해체 당연!
-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왜 무너뜨리셨는지 세길 필요가 있을 듯..
- \*돈으로 자리를 사려했다는 것이 소문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선언으로 이어진 이상 한기총은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 할 수 없습니다. 해체하라! 한기총!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 가치가 있는 한기총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로 전락한 한기총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본 글은 "한기총 왜 해체해야 하는가 서울토론회(4월1일)" 주제발제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발제문 전체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월세 대란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1평 남짓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눌러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들,  
 감당 못 할 전세 값 상승으로 시름이 한층 깊어진 우리 이웃들의 고통이 들립니다.

기윤실은 새벽이슬, 화년함께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6일(화) 송실대에서 '전·월세 대란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고통당하는 이웃의 짐을 서로 지는 마음으로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 가능하고, 작지만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소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지요.

청중의 대다수는 전월세대란을 몸소 겪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기숙사부터 고시원 옥탑방까지 다양한 주거형태를 경험한 진실에 협력간사(새벽이슬)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성찬 센터장(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의 날카로운 원인분석에 이어 단·중·장기적 제안은 '지금' 그리고 '여기'의 작은 실천부터 구조적인 실마리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김회권 교수(송실대 기독교학과)는 예수님과 바울의 성경인 구약과 모세오경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말씀을 순진하게 그대로 믿는 것과 가난한 자들에게 신적 자비를 팔팔팔 흐르게 하는 것(암5:24)을 요청하셨습니다. 덧붙여 십일조 올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등 실제적인 제안들까지.

마지막으로 김영철 목사(새민죽교회 담임)는 전월세 대란의 피해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앞장 선 '갈 때까지 간'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세금 인하운동과 시청 앞 광장에서의 실천 대회 등 적극적인 행동과 더불어 '전세자금무이자대출지원'과 교회건물의 공동사용 및 통폐합, 학사관 건축 등 교회의 현실적인 역할에 대해서 제안해주셨습니다.

포럼이후, '전·월세대란의 시대, 기독교인들이 전월세 값 동결을 선언합니다!' 제안문을 동역교회에 발송했으며, 현재 회원님들과 주변의 전월세 값 동결 및 인하의 실천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박진영 간사  
 070-7019-3754,  
 loverlina@naver.com  
 ☞〈전·월세 대란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월세대란의 시대, 기독교인들이 전·월세 값 동결을 선언합시다!

최근 '전·월세대란'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폭등한 전·월세값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살기 힘들어졌고, 청년들은 손꼽아 기다리던 결혼을 마루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먼 곳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평생을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던 은퇴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과제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전·월세대란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실천가능한 거룩한 희생을 감당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새벽이슬, 회년함께는 이 문제 앞에 고민하며 4월 26일 포럼을 진행했고, 그 논의결과로 다음과 같이 동역교회와 회원님들께 전월세대란 완화를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교회에 드리는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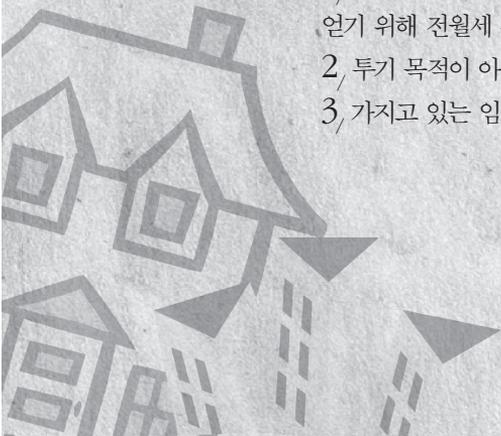
- 1, 교회 건물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봅니다. 실제로 자신의 교회 건물을 지역과 선교 단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교회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교회는 남는 건물/공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건물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지방 대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마련을 제안드립니다. 실제 신촌, 홍대 인근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텔을 학사관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가난한 이웃과 형제자매에게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기꺼이 돈을 빌려주고, 교회는 이 일에 우선권을 두고 재정을 사용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디트운동을 교회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합시다.
- 4, 교회가 교회 내 전월세 동결운동 동참자와 무주택 서민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제안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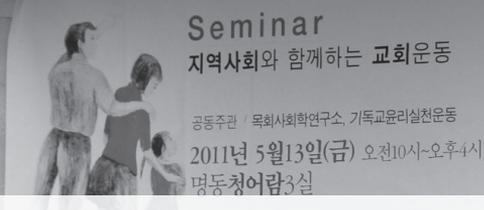
## 성도님들께 드리는 제안

- 1, 이웃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전월세 값을 올리지 않습니다.
- 2, 투기 목적이 아닌 필요, 실수로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 3, 가지고 있는 임대가치를 지역사회와 가난한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눕니다.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 11:24)

2011년 4월 28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새벽이슬, 회년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세미나

오늘날 교회는 사회로부터 괴리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기도 하지요. 언뜻 보아 다른 듯 보이는 두 의견은 실상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돌보셨던 예수님(마9:35)을 따라야 하는 교회가 꼭 귀 기울여야 할 소리입니다.

기윤실은 2011년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5월 13일(금)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정재영 교수(실천신대원 종교사회학)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세우기 전략'

★정선철 소장(도시설계연구소) '도시지역 공동체 세우기'

★조경열 목사(아현감리교회) '도시지역 교회의 지역공동체 사례'

세미나에 이어 기윤실은 계속해서 6월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교회탐방과 함께 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1일 워크숍을 10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기윤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 '박제민 간사 070-7019-3755, pjmdb@hanmail.net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세미나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존의 근거  
심의 필요



정재영 교수  
(실천신대원 종교사회학)

##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전략

### 1. 교회와 지역 공동체

최근의 공동체 개념은 공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산업화의 결과로 전통의 공동체들이 와해된 상황에서 삶의 기반을 공유하는 지역 사회에 공동 의식에 터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사회학의 관점으로 볼 때, 교회 역시 교회가 터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주민 등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주목한다. '마을 만들기'란 그 공동의 장을 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을 말한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를 포함하는데, 곧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의식을 개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시민의식은 기독교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독교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모델

지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타결하는 참여민주주의 훈련과 주민자치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을 배양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해 주는 힘이 바로 신뢰와 협동, 자치와 참여라는 사회 자본이다(김영정: 14). 여기서 교회가 하나의 사회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화된 개인들이 운동 경기를 보듯이 모여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공공의 문제를 토론하는 사회관계를 발전하게 된다면, 시민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자본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 운동은 주민, 행정기구, 지역 단체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여기서 지역 단체의 역할은 공동체 운동 주체들의 파트너십 속에서 이 운동의 지속성을 견인하는 성실한 중개자이자 매개자이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단체 활동가들은 관련분야를 폭넓게 학습하고 종전의 감시형, 비판형, 이슈형의 행동양식보다는 참여형, 창조형, 대중형의 행동양식으로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 지역 단체에는 지역 교회가 포함된다. 지역 교회 역시 지역 단체의 하나로서 교회가 가진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 공동체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 III. 지역 공동체 형성 전략

이제까지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회의 노력이 전혀 없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많은 경우 복음전도의 수단으로 여겨져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교회 역시도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 교회 내 역량 강화

이러한 지역공동체 세우기(communit building, 아래에서 CB로 줄여 씀)에 교회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필요한데 그것은 교회 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로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가 CB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교회 안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활성화 되어 있는 다양한 소모임들을 TF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소그룹 TF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직접 실천 주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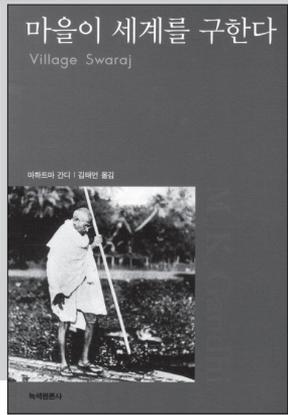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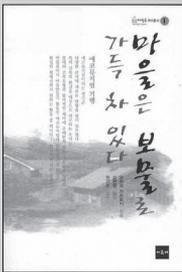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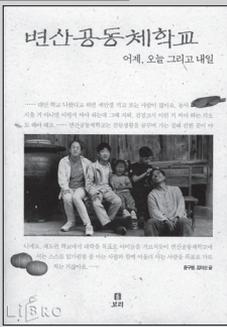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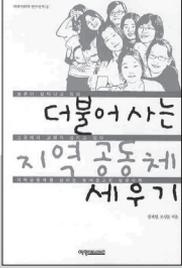
물적 자원으로는 먼저 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역 공동체 활동 예산으로 할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 공간을 지역 공동체 운동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전 준비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CB에 참여하기 위한 교회 역량을 점검하는 것이다.

### 2. 지역공동체 운동 내용 설정

CB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참여할 CB의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 생태 운동, 마을 축제, 농촌 체험 마을, 녹색 도시 운동, 녹색 가게/생협 운동, 지역 화폐 운동,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공유지 마련, 공동자산 트러스트 운동, 문화재 유적지 정비사업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CB 활동에 직접 참여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기존에 있는 지역 활동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중에 하나는,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교회가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추천도서

## 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세우기)

- ☐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정재영, 조성돈 / 예영커뮤니케이션
- ☐ 마을만들기의 발상 다무라 아키라 / 소화
- ☐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박원순 / 검등소
- ☐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오하라 가즈오키 / 아르케
- ☐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하트라 간디 / 녹색평론사
- ☐ 변산공동체학교 김미선, 윤구병 / 보리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탐방

날짜 / 2011년 6월 20일(월), 21일(화) 무박 2일

장소 / 20일 서울 마포 행복마을주식회사, 염리동 주민센터, 경기 성남 주민교회  
/ 21일 전북 임실 치즈마을

회비 / 20일 10,000원, 21일 20,000원

등록 / 기윤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문의 / 박제민 간사, 02-794-6200, pjmdb@hanmail.net, www.cemk.org

또 한 가지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지역 행정 기관인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와 지역 교회들이 협력하여 지역 활동을 하는 교동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 3. 주민 및 관공서 연계

지역공동체 세우기는 교회가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주도를 해야 하므로 지역주민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주민 대표를 구성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수 차례 회합 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CB에 참여할 임원진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민주체 역량을 증대시키고 리더십 훈련도 병행한다.

\*본 글은 5월 13일에 개최된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세미나 발제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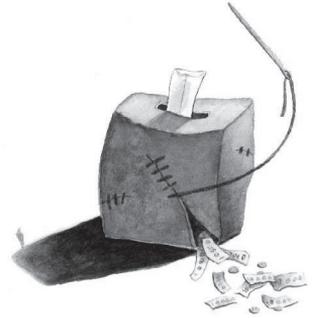
다음으로 관공서와의 연계를 시도한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공동체 역량구축을 위한 조력자이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4. 주민과 함께하고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실천

CB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나 지역 욕구 조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지역 욕구조사를 통해 이슈를 발견할 수 있다.

한 CB 전문가는 "CB는 하나의 종합예술이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한국의 교회들이 피폐해진 현대 사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망의 싹을 틔우리라는 소망으로 지역 사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공직선거법 개악改惡, 함께 막읍시다!



**황당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당사가 100만원, 가족이나 선거관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요. 그것을 각각 300만원, 7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스스로가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아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강동구갑)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구 출마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공명선거운동과 부패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기운실은 재빨리 반대성명을 내고 관계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기운실 회원과 소식을 보시는 여러분, 공직선거법 개악(改惡), 함께 막읍시다. 이렇게 황당한 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해주세요!



☞문의 | 박제민 간사 070-7019-3755, pjmdb@hanmail.net

☞성명서 전문은 기운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개악(改惡), 함께 막읍시다

### 강석호 (한나라,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T. 02-788-2383 / F. 02-788-3314 / kangsh0331@yahoo.co.kr / www.kangsh.kr

### 고승덕 (한나라, 서울 서초구을)

T. 02-788-2307 / F. 02-788-3835 / audfbs@korea.com / www.kohzzang.or.kr

### 김선동 (한나라, 서울 도봉구을)

T. 02-788-2692 / F. 02-788-3442 / like-corea@naver.com / www.sundong.org

### 김옥이 (한나라, 비례대표)

T. 02-788-2874 / F. 02-788-3304 / gko47@na.go.kr / blog.naver.com/kim\_oklee

### 김정권 (한나라, 경남 김해 갑)

T. 02-788-2645 / F. 02-788-3517 / jk38@hanmir.com / www.jk.or.kr

### 김충환 (한나라, 서울 강동구 갑)

T. 02-788-2082 / F. 02-788-3316 / kimcw@assembly.go.kr / www.kimcw.com

### 박대해 (한나라, 부산 연제구)

T. 02-788-2873 / F. 02-788-3821 / pdh@assembly.go.kr / www.pdh.or.kr

### 박민식 (한나라, 부산 북구 강서구 갑)

T. 02-788-2877 / F. 02-788-3539 / jh0329ms@hanmail.net / www.minshik.kr

### 서상기 (한나라, 대구 북구을)

T. 02-788-2362 / F. 02-788-3638 / sks@assembly.go.kr / www.sks.or.kr

### 송광호 (한나라, 충북 제천단양)

T. 02-788-2113 / F. 02-788-3694 / skhh2008@hanmail.net / www.songkh.com

### 이종구 (한나라, 서울 강남구 갑)

T. 02-788-2305 / F. 02-788-3429 / jjongkoo@assembly.go.kr / www.jongkoo.com

### 이한성 (한나라, 경북 문경 예천)

T. 02-788-2952 / F. 02-788-3837 / hansung@na.go.kr / www.leehs.kr

### 이화수 (한나라, 경기 안산 상록구 갑)

T. 02-788-2758 / F. 02-788-3436 / lhs5301@assembly.go.kr / www.poweransan.kr

T. 02-788-2706 / F. 02-788-3825 / yschang49@assembly.go.kr / www.yschang49.or.kr

### 장윤석 (한나라, 경북 영주)

T. 02-788-2706 / F. 02-788-3825 / yschang49@assembly.go.kr / www.yschang49.or.kr

### 정의화 (한나라, 부산 중구 동구)

T. 02-788-2125 / F. 02-788-3312 / chung-u-h@hanmail.net / www.justice21.or.kr

### 김용구 (자유선진, 비례대표)

T. 02-788-2481 / F. 02-788-3306 / alllime@hanmail.net / www.ygkim.kr

### 김창수 (자유선진, 대전 대덕구)

T. 02-788-2152 / F. 02-788-3508 / cstthink21@hanmail.net / www.cstthink.co.kr

### 이진삼 (자유선진, 충남 부여청양)

T. 02-788-2181 / F. 02-788-3714 / ljs714@assembly.go.kr / http://www.ljs.co.kr

# “일본대지진”

긴급구호기금마련에  
참여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을 위한 대지진 긴급구호 모금을 시작할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랑이 모일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운실이 전문구호단체는 아니지만, 긴급구호 상황이 발생했을때마다 모금액 전액(일체의 행정비 사용없이)을 지원하는 전통을 알고 계신 많은 후원자님들께서 이번 일본 대지진 모금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억3천여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131,384,471원)

**\*일본대지진 후원자명단은 21~23 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재정은 처음 모금을 시작할 때 공지해 드린대로 "센다이시그리스도연합(센다이시교회연합)"을 통해 일본 현지에 지원되며, 1차 긴급구호자금으로 지난 4월 25일 한화 5천만원, 엔화로 약 376만엔(3,764,500엔)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운실은 남은 모금액의 경우 기운실을 믿고 보내주신 후원자님들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며,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더 책무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크리스천라이프센터(이사장 이문희), 힐링피스(채플린 유혜신)와 연대하여 "스탠바이 저팬(Stand by Japan)"을 조직, 일본교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사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스탠 바이 저팬은 첫째,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 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곁에서 서서 그들이 필요한 일을 돕고, 둘째, 일본이 이번 지진을 계기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세우는 새로운 시대를 대가하는 자세로 기다리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협의를 위해 지난 5월 9일(월)-12일(목)까지 일본 센다이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운실처럼 일본교회를 돕고 있는 국제선교단체간 회의에 참석해 정보를 교류했으며, 지진해일피해지역을 답사했습니다.

기운실은 남은 모금액인 8천여만원에 대해서도 센다이시그리스도연합이 일본동북지방 전역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개편 될 조직에 지원하여 계속해서 일본교회가 중심을 잡고 일본사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일본교회와 성도들, 일본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모금액이 사용될 때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기금마련에 참여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본대지진 센다이시 현장 방문 보고서

1. **취지** 일본대지진 피해가 단기적인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관계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협력기관인 일본 센다이시그리스도연합 피해재난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후속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

2. **방문자(4명)** 조제호 사무처장(기윤실), 위국명 인턴간사(기윤실), 신산철 사무총장(크리스천라이프센터), 나용균 대표(자원개발네트워크)

3. **가이드 선교사** 나달식 선교사(도쿄), 안부자 선교사(요코하마), 박권출 선교사(쯔쿠바)

## 4. 주요일정

### 국제회의 참석 (10일 오후1시)

일본그리스도개혁파교단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국제단체들의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정통장로교(OPO), 미국복장로교(CRC), 남아프리카출신 개인선교사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했다. 긴급구호 성격의 1단계 지원은 마무리 단계며, 정서적인 필요와 맞춤형 지원의 2단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친구가 되어 사역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 일본그리스도개혁파교단 동북노회 참석 (10일 오후6시)

이번 일본대지진 피해를 주로 입은 지역은 남한 넓이의 일본 동북지방이다. 일본 동북지방에는 초교파적으로 교회가 300여개, 개혁파교단 소속으로는 15개 교회가 있다고 한다. 이 넓은 지역을 300개(15개) 교회가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한분 한분 참석 목사님들의 지진 이후 사역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가 나왔다.



### 와카바야시구 아라하마(Arahama, 荒浜)해안가 (11일 오전)

이번 쓰나미 피해지역 중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센다이시 인근 해안가이다.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 집들은 형체가 없이 바닥만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쓰나미 피해는 800km 해안과 내륙으로 4.5km까지 입었다고 한다.



### 와타리군 야마모토(Yamamoto, 山元)정 (11일 오전)

실제 해안가의 경우 쓰나미의 직접 피해로 인해 집들이 형체가 없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해안가에서부터 쓸려 밀려온 큰 나무나 선박, 자동차들로 인해 집이 형체가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제대로 복구된 집들은 극소수이고, 많은 지역에서 단수 및 단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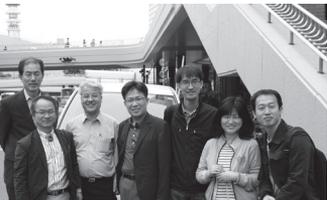
### 나토리(Natori)시 (11일 오후)

센다이공항이 위치한 센다이시 인근 위성도시이다. 센다이공항은 아직 물자수송을 위한 임시편만 운행할 정도로 복구가 더딘 상황이고, 인근 지역 또한 눈으로 보이는 피해로는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이다.



##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 답사때 운전,통역으로 섬겨주신 3분의 선교사님과 어려운 상황가운데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계신 일본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센다이시그리스도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요시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회계보고

2 0 1 1 03~04

기간<sup>1</sup> 2011년 3월 1 일 부터 2011 년 4월 30일 까지

수입		지출	
계정과목	2011년 3월~4월	계정과목	2011년 3월~4월
I. 사업수익	171,437,471	I. 사업비용	39,420,261
① 회비	22,416,000	① 인건비	20,679,241
㉠ 회원회비	17,902,000	② 사무관리비	7,802,790
㉡ 이사회비	1,630,000	③ 사업비	10,938,230
㉢ 지역회비	2,884,000	㉠ 사업행사비	3,445,220
② 일반후원금	18,670,000	㉡ 회의비	305,560
㉠ 교회,기관후원금	18,670,000	㉢ 홍보비	95,000
③ 특정후원금	130,318,471	㉣ 강사비	550,000
㉠ 지원후원금	130,318,471	㉤ 인쇄비	636,960
④ 사업수입	33,000	㉥ 진행비	1,358,700
㉠ 자료판매비	33,000	㉦ 협력사업비	499,000
		㉠ 홍보사업비	4,125,740
		㉡ 지역사업비	3,367,270
II. 사업외수익	669,427	II. 사업외비용	51,156,173
① 이자수익	9,519	① 기부금	51,156,173
② 잡수입	659,908		
<b>3~4월 수입계</b>	<b>172,106,898</b>	<b>3~4월 지출계</b>	<b>90,576,434</b>
III. 기타	244,183	III. 기타	267,010
① 선급금의 처분	244,183	① 예수금의 결제	267,010
IV. 전기(월)이월	118,260,150	IV. 차기(월)이월	199,767,787
① 현금	326,670	① 현금	772,080
② 예금	117,933,480	② 예금	198,995,707
<b>예금총계</b>	<b>290,611,231</b>	<b>예금총계</b>	<b>290,611,231</b>

\*당 수지결산서는 3~4월 해당월의 운영성과 뿐 아니라 기윤실의 재정건전성을 통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공한 데이터입니다. \*3월과 4월의 세부 수지결산서를 보고자 하시는 분은 기윤실 홈페이지 “기윤실 살림살이”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기윤실 운동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교회, 단체의 후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윤실 회원가입** 홈페이지(www.cemk.org)와 전화(070-7019-3757)를 통해 연후원(5만원 이상), 월정기후원(5천원이상), 소액후원(신용카드/휴대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입금은행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 037-01-0504-979 / 우리 821-05-002520 / 기업 070-013538-01-022 / 우체국 012401-01-001137 /

농협 074-01-121183 제일 377-10-025628 / 신한 140-001-056299 / 하나 109-228746-00104 /

외환 144-13-05572-6 / 씨티 136-50810-258 / 지로번호7530353

**\*신규회원** 3월<sup>1</sup> DP1100022 권영중 DP1100024 손희선 DP1100035 김성권

4월<sup>1</sup> DP1100027 이봉은 DP1100031 장창수 DP1100047 김용군 DP1100074 배기동 DP1100075 윤우선

## 2 0 1 1 년 0 3 ~ 0 4 월 후 원 자 명 단



### 3월 개인후원금

(1천) 김범영 이슬이 (2천) 기우서 오동춘 정지연 (3천) 김은이 김춘곤 명호중 문현주 박상희 방승영 손교식 손상일 손은순 원종민 원철 장연순 조인진 (4천) 김진필 (5천) 강영수 강영실 강은영 강춘례 강현주 고영준 공미자 권오재 권태현 김겸손 김경숙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령희 김문정 김미혜 김삼숙 김삼윤 김상은 김석돈 김선희 김성길 김성득 김수정 김연수A 김연수B 김영 김영민 김옥전 김이수 김인숙 김재균 김정린 김정현 김정훈 김종호 김주현 김태훈 김하영 김하나 김해자 김혜경 김홍환 김희숙 김희정 김희철 나영식 나현집 남준일 노광섭 노승아 라창호 류종우 문경환 문덕암 문애정 문정옥 박경만 박경희 박기업 박미정 박상돈 박서현 박석호 박세진 박수정 박윤정 박재완 박재호 박정민 박지영 박혜경 박환승 배진성 백경원 백인남 백지열 백혜림 범학식 서단비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손종호 손현화 송성현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대회 신동일 신동필 신수현 안정은 엄현식 여신은 오명현 오세란 오창섭 우현기 유지성 유창수 유희경 윤미정 윤성우 윤여송 윤영희 윤혜균 은현희 이경옥 이경진 이계형 이국은 이금아 이기용 이남경 이도홍 이동혁 이범석 이병삼 이상철 이성민 이상재 이상훈 이수룡 이영분 이은자 이정민 이정선 이정옥 이정희 이종숙 이종혁 이창미 이태희 이필성 이혁재 이희열 임현숙 장관 장상진 장익 장준혁 전병화 전진우 전희숙 정금영 정미옥 정병선 정부영 정선우 정수덕 정유선 정재숙 정철모 정철민 정한철 조양래 조용환 조인형 지연심 채혜성 천민우 최경구 최경석 최성숙 최성재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종원 최지원 하용정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계량 한화영 홍선희 홍일선 홍정진 홍창진 황문용 황병일 (6천) 서동진 (7천) 신명호 안정신 유영신 이춘화 (1만) 강대현 강명길 강승철 강은경 강일구 강진호 강형구 강호인 강홍구 강희철 고선옥 고승표 고정환 권대연 권명희 권민규 기세충 김경천 김계홍 김광환 김달수 김대인 김말순 김명금 김명찬 김미령 김민규 김민영 김병일 김상수 김상한 김성경 김성권 김성근 김성상 김성수 김성심 김성열 김성천 김성태 김성호 김수자 김승일 김영모 김영봉 김영철A 김영철B 김예운 김옥래 김요열 김유미 김윤수 김익수 김재홍 김재환 김경섭 김종민 김종필 김주영 김준영 김지태 김학동 김한성 김형중 김혜경 김홍섭 김홍연 김홍주 남경자 남궁설 남대일 남동익 남제현 남태일 도종수 류기성 문경민 문규 문석우 문춘식 박경순 박경춘 박동민 박문구 박민선 박병주 박복애 박봉순 박상홍 박성진 박영범 박윤배 박인자 박일화 박재규 박재장 박재현 박정민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철규 박철원 박태영 배기홍 배복희 배재수 배정호 백상인 백현주 변철석 변현정 변화중 서임선 서태원 서현희 성연상 소은중 손덕순 손상문 손은숙 손주의 송미옥 송병문 송인오 송재기 송준인 송태현 송형록 신상린 신은정 신전수 심재용 안광례 안선옥 안신길 양병이 양신근 양태홍 양홍길 연미영 오덕수 오동훈 오상덕 오성만 오은석 옥성일 원영대 유영준 유원옥 유은상 유재균 유정윤 유현숙 윤나래 윤민영 윤선현 윤소성 윤양숙 윤태호 이건 이근무 이금노 이기선 이길승 이동철 이문규 이방옥 이병환 이봉원 이상규 이상복 이석형 이선희 이성진 이수진 이승원 이영수 이영주 이용천 이용훈A 이용훈B 이원애 이윤락 이윤정 이윤희 이재윤 이주영 이진형 이찬호 이창직 이철수 이현숙 이현호 이화영 이훈배 인훈 임일택 임종록 임태규 임희옥 장기화 장성록 장지인 장혜경 전병선 전선영 전종갑 전태수 정규장 정명숙 정명태 정병오 정병화 정성진 정연실 정연희 정영호 정용복 정운채 정유진 정은창 정익수 정준 정현철 정혜숙 정화선 조경하 조부성 조열제 조영관 조용진 조우철 조운 조제호 조종호 조현 조혜미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천경훈 최근영 최삼옥 최상태 최우석 최용 최은정 최정철 최해홍 최혜석 최희영 태원우 팽정호 한귀목 한상호 한신영 한인에 한인철 한지연 허주희 홍인기 황철진 (1만1천) 김지수 서종오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1만5천) 강병관 김경호 김태환 배정주 윤영관 정세열 홍기룡 (2만) 강홍준 곽향연 권장희 김경미 김광은 김남기 김미숙 김병식 김세진 김신곤 김현태 김효민 김효상 남재환 노성순 박대호 박득훈 박명곤 박명배 박상규 박은미 박종원 박태순 박판근 손영걸 손원일 손화철 송인수 신국원 신호관 양낙홍 양세진 오혁진 유건호 유미정 유혜원 윤철중 이만열 이명자 이상현 이수경 이원영 이재문 임혜정 장춘복 정민정 정은영 조윤희 최성수 최영희 최윤선 최혜원 추진연 한국회 한병선 함봉식 허영진 홍관수 황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올립니다. 영수증을 대신하여 입금내용을 실습니다. 월 구분은 기윤실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오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고, 서울에서는 서울지역 및 미조직 지역 회비관리하드로 서울 외 지역 회원께서는 각 지역기윤실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기윤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박애에 간사  
070-7019-3756

## 후원자명단

2 0 1 1  
0 3 ~ 0 4

규산 (2만5천) 이경재 (3만) 김선욱 김성현 김은수 김은혜 김진석 김철준 박종진 박철 박한옥 백기숙 백요한 손기식 송태호 신종현 양지혜 엄용환 원응삼 유성오 유혜신 윤혁경 이상진 이은미 이준균 이희석 임성민 정문희 정애리 정유진 한상호 홍대식 황규민 황석주 (4만) 김나선 김민숙 정영훈 홍인중 (5만) 권영중 김경래 김상범 김수현 김승희 류인복 문현미 박종운 박창균 신은정 이승구 이원근 이의용 이진숙 이창산 정철도 조성극 최광사 (5만5천) 조홍식 (6만) 박재우 이은희 최승원 (10만) 김일수 손희선 전재중 채홍석 (15만) 손봉호 (20만) 강영안 김구 김대준 박범기 이장규 정광재 (30만) 김신욱 (36만5천) 안연희

### 교회·기관 후원금

(1만) 동서장로교회 서울일본인교회 (3만) 은평침례교회 (4만) 빛과소금교회 (5만) 나눔교회 늘푸른침례교회 마산재건교회 밀알교회 부천평안교회 서울광업교회 서울영동교회7여전도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진교회 지구촌교회 (8만) 강변교회 (10만) 남서요교회 다니엘세시대교회 대주산업 동부광성교회 목민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예인교회 분당소망교회 서울서문교회 신반포교회 안암제일교회 연악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산은혜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중앙성결교회 지비전인터내셔널 (20만) (주)마임 산울교회 서울남교회 할렐루야교회 향상교회 (30만) (주)소프트이천 덕수교회 리더쉽인사이트 우리들교회 (40만) 남서울은혜교회 화평교회 (50만) 한영교회 (60만) 분당샘물교회 (100만) 서울영동교회 지구촌교회 (200만) 사랑의교회

### 일본대지진 후원금

(1만) 류종우 이수환 이종혁 (2만) 이재현 (10만) 김성경 안연희 양낙홍 장택용 정지인 (40만) 구미순복음교회 (50만) 김선욱 손봉호 은혜와영광교회 (100만) 동일교회

### 4월 개인 후원금

(1천) 김범영 이슬이 (2천) 가용서 오동춘 윤해균 정지연 (3천) 김은이 김춘곤 남영란 명호중 문원주 박상희 방순영 서동진 손교식 손상일 손은순 원종민 원철 장연순 조인진 (4천) 김진필 (5천) 강영수 강영실 강은영 강현주 고영준 공미자 권오재 권태현 권훈주 김겸손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명희 김문정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석돈 김선희 김성길 김성득 김수정 김연수 김영 김옥전 김이수 김인숙 김재균 김정린 김정현 김정훈 김종호 김주현 김준철 김준희 김하영 김하나 김해자 김혜경 김홍환 김희숙 김희정 김희철 나영식 나현집 남준일 노광섭 노승아 류종우 문경환 문덕암 문애정 문정옥 박경만 박경희 박기업 박미정 박상돈 박서현 박세진 박수정 박재완 박재호 박정민 박지영 박혜경 박환승 배계수 배진성 백경원 백인남 백지열 백혜림 범학식 서단비 서동진 서유미 서일향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손종호 손현화 송성현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대희 신동일 신동필 신수현 안정은 엄현식 여신은 오명현 오세란 오창섭 우현기 유지성 유창수 유희경 윤미정 윤성우 윤여송 은현희 이경욱 이경진 이계형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남경 이도홍 이동혁 이범석 이병삼 이상철 이성민 이성재 이성훈 이수룡 이영민 이은자 이정민 이정선 이정옥 이정희 이종숙 이종혁 이창미 이태희 이필성 이해영 이혁재 이희열 임현숙 장관 장상진 장익 장준혁 장창수 전병화 전진우 전희숙 정금영 정미옥 정병선 정부영 정선우 정성진 정수덕 정왕효 정유선 정계숙 정철도 정철민 정한철 조양태 조용환 조인형 지연선 채혜성 천민우 최경구 최경석 최성숙 최성재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종원 최지원 허용정 한기재 한석환 한재량 한화영 홍기룡 홍선희 홍일선 홍정진 홍창진 황문용 황병일 (6천) 정영미 (7천) 신명호 안정신 유영신 이춘화 (9천) 신희선 (1만) 강대현 강명길 강승철 강은경 강일구 강진호 강형구 강호인 강홍구 강희철 고선욱 고승표 곽향연 권대연 권병희 권민규 기세중 김경천 김계홍 김광환 김달수 김대인 김말순 김명금 김명찬 김미령 김민규 김민영 김병일 김상수 김상한 김성경 김성근 김성상 김성수 김성열 김성진 김성태 김성호 김승일 김영모 김영봉 김영철A 김영철B 김요열 김윤수 김은수 김익수 김재홍 김재환 김정섭 김종민 김종필 김주영 김준영 김지숙 김지태 김학동 김한성 김혜중 김혜경 김홍섭 김홍연 김홍주 김효민 김효상 남경자 남궁설 남대일 남동의 남재현 남태일 도중수 류기성 문경민 문규 문석윤 문춘식 박경순 박경춘 박동민 박문구 박민선 박병주 박복에 박봉순 박상

홍 박성진 박영범 박윤배 박윤정 박은지 박은하 박인자 박일화 박재규 박재장 박재현 박정입 박종구 박주현 박지연 박철규 박철원 박태영 박한옥 배기동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백상인 백현주 변철석 변현정 변희중 서임선 서태원 서헌희 성연상 소은중 손덕순 손상문 손은숙 손주익 송미옥 송병문 송복순 송인호 송재기 송준인 송태현 신동립 신상린 신은정 신전수 심재용 안선옥 안신길 안연희 양병이 양신근 양태흠 양홍걸 연미영 오동훈 오상덕 오성만 오은석 옥성일 원영대 원응삼 유미정 유영준 유원욱 유재균 유정윤 유현숙 유혜원 윤나래 윤민영 윤선현 윤소영 윤양숙 윤태호 이근무 이근노 이길승 이동철 이방욱 이병환 이봉원 이봉은 이삼희 이상규 이상복 이석형 이선희 이성진 이수진 이순자 이승원 이영수 이영주 이윅희 이용천 이용훈A 이용훈B 이우길 이원애 이윤락 이윤정 이윅희 이은미 이재윤 이정은 이주영 이진형 이찬호 이철수 이충학 이현숙 이현호 이호식 이화영 인훈 임일택 임종록 임태규 임희옥 장기화 장혜정 전종갑 전태수 정명숙 정명혜 정병화 정애리 정연실 정영호 정용복 정운재 정유진 정유진 정은창 정익수 정일용 정준 정현철 정해숙 정화선 조경하 조무성 조용진 조우철 조운 조제호 조준호 조현 조혜미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친경훈 최근영 최삼옥 최상태 최윤 최은정 최지영 최해홍 최혜석 최희영 추진연 태원우 팽정호 한기복 한상호 한신영 한인에 한지연 허영진 허주희 홍상희 홍인기 황철진 (1만1천) 서종오 (1만2천) 윤영식 (1만5천) 강병관 김태환 배정주 서체란 윤영관 임종호 정세열 조은경 최하은 (2만) 강훈준 강홍준 구예리 권장희 김경미 김광은 김나선 김남기 김대남 김미숙 김민숙 김병식 김성식 김세진 김신곤 김영식 김태훈 김희경 남재환 노성순 박대호 박득훈 박명곤 박명배 박은미 박재형 박종원 박태순 박관근 손영철 손원일 손은정 손화철 송인수 신국원 신호균 양낙홍 양세진 오혁진 유건호 유혜원 유우선 윤철중 윤치호 이만열 이명자 이상현 이수경 이원영 이재문 임혜정 장춘복 정민경 정은영 조윅행 최성수 최영희 최윤선 최혜원 한국회 한병선 함봉식 홍인종 황규산 (3만) 김경미 김선옥 김성현 김은혜 김진석 김철준 박종진 박철 백기숙 손기식 손용기 송택호 신종현 양정석 양지혜 엄용환 유성오 유혜선 윤여진 윤혁경 이상진 이준균 이희석 임성빈 정분희 조성산 한상호 홍대식 황석주 (4만) 장영수 최영석 (5만) 김경래 김상범 김수현 김승희 류인복 문현미 박종운 박창균 신은정 이승구 이원근 이의용 이진숙 정철도 조성극 최광사 (5만5천) 조홍식 (6만) 김수자 박제우 백명희 최승원 (10만) 김용근 김일수 손봉호 우창록 전재중 채홍석 (20만) 강영안 김구 김대준 이장규 정광제 (30만) 김신욱 (61만) 정영훈

### 교회·기관 후원금

(1만) 동서장로교회 서울일본인교회 (2만) 빛과소금교회 (3만) 은평침례교회 (5만) 나눔교회 늘푸른침례교회 마산제건교회 밀알교회 부친평안교회 생명의강교회 서울광영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진교회 지구촌교회 (8만) 강변교회 (10만) 남서울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대주산업 동부광성교회 목민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예인교회 분당소망교회 산울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서문교회 신반포교회 안암제일교회 언약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산은혜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중앙성결교회 지비전인터내셔널 (20만) (주)마임 고양화평교회 청량교회 할렐루야교회 향상교회 화평교회 (30만) (주)소프트이천 덕수교회 목산침례교회 분당샘물교회 우리들교회 (40만) 남서울은혜교회 (50만) 한영교회 (100만) 서울영동교회 지구촌교회

### 일본대지진 후원금

(2만) 이재현 (5만) 문현미 (10만) 박제우 배종석 수원중앙성결교회청년회 (20만) 정신사랑의교회 (30만) 이장규 (303,570) 빛과소금교회 (30만7천) 유인기 (40만) 조촌교회 (43만9천) 한가죽교회 (50만4천) 디함공동체교회 (100만) 남전주성결교회 (200만) 다니엘새시대교회 (305만2천) 판교샘물교회 (500만) 고양화평교회 서울영동교회 (7,395,523) 나들목교회 (9,590,920) 대한예수교장로회제건교회 (1,000만) (주)카나 (2,000만) 우리들교회 (21,006,458) 분당샘물교회 (4,000만) 지구촌교회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윤실 소식을 나눕니다. 전국기윤실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님들께서는 각 지역 활동에 관심가지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인천기윤실

**1.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손봉호 교수 초청 강연회** 4월20일(수) 오후7시 / 인천기독교교회관 강당 성서한국인천부천과 공동주관으로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50여명이 참석했고, 손봉호 교수의 명강의에 이어 다함께 눈물흘리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 전주기윤실

**1. 전주시 시내 불법연등 성명서 발표 및 전주시청, 시의회 항의 방문** 4월15일(금) 오전10시 / 전주시청 시장실, 시의회 문광위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인권선교협의회, 전주시장로연합회, 전주기윤실 4개 단체는 불법연등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청과 시의회 문광위를 항의 방문하여 불법연등설치중단과 종교자유 침해, 특정종교의 포교와 의식화를 중단하고 사찰과 경내와 주변에 국한하여 설치할 것과 아트폴리스 정책에 역행하며 전주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과 환경을 해손 시키는 무분별한 연등 무단설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시내버스사파업(144일) 해결과 NH본사 전복유치를 위한 기도회** 개최 5월1일 (주일) 오후3시 / 전주성결교회 대표 오성택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정덕만목사(전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의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 전주시 시내버스파업해결을 위해 / 권오선 목사(실행위원) 사회적책임과 교회일치를 위한 / 이원영 장로(실행위원) NH본사 전복유치를 위해 / 최미경 목사(실행위원)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청주기윤실

#### 1. 저자 초청 특강

청주기윤실과 기독교문화원이 공동주최하는 저자초청특강이 5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에 청주CCC아카데미센터 소강당에서 한국교회가 잘못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이야기의 저자 윤석준 목사를 강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월 독서토론 모임을 갖기로 하고 6월 7일(화) 오후 7시 30분에 청주기윤실 사무실에서 2차 모임을 갖습니다.

#### 2.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사랑의 성미 나눔 운동

청주기윤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에 매월 쌀과 생필품을 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사랑의 성미나눔운동에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3. 충북청주기독교단체협의회 산행

지난 5월 21일(토) 오전 9시, 충북청주기독교단체협의회회원단체 임직원 200여명이 진천 농다리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4. After You 캠페인

타인을 배려하고 나로부터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After You 캠페인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실천운동을 함께 펼칠 교회와 성도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기윤실(준)

**1. 제주기윤실 설립준비에배** 5월8일(일) 오후 7시30분 / 조수교회 제주기윤실 설립을 위한 예비배가 조수교회(김정기 목사)에서 손봉호 자문위원장(고신대 석좌교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제주기윤실은 앞으로 지역기윤실 운영내규에 따라 공식 창립을 준비하게 되며 앞으로 제주기윤실(준)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국기윤실협의회

**1. 전국기윤실협의회 대표자회의** 4월15일(금) 오후3시 / 서울명동 청어람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윤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전국기윤실협의회 대표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

의에서는 2011년 활동중인 7개 지역(대전·부산·서울·진주·청주·인천과 전주)는 위임) 대표자들이 모여 그동안 논의는 많았지만, 문서로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①전국기윤실협의회 운영방안과 ②기윤실 전국 사업안 및 지원방안, ③지역기윤실 운영내규에 대해 확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기윤실협의회는 앞으로 미활동지역들이 다시 활동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윤실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전국기윤실협의회

지역·실무·연락처·이메일·후원계좌

##### <활동지역/해외>

**대전** \* 여대수 사무처장 / 042-256-5183 / yodaso@naver.com / 씨티은행 401-08261-269-01

**부산** \* 김기현 사무국장 / 051-462-1558 / ezrakim@hanmail.net / 국민은행 101-01-0677-614

**인천** \* 우조은 협동간사 / 010-8961-8351, n99618351@nate.com

**전주** \* 김윤배 사무국장 / 018-245-9222 / kyb0191@hanmail.net / 전북은행 603-13-0310301

**진주** \* 055-747-1484 / jingiyun@korea.com / 농협 803-01-364451

**청주** \* 이창호 사무국장 / 043-274-5852 / cjcemk@paran.com / 신한은행 633-03-000057

**LA** \* 유용석 장로 / cem\_la@yahoo.com / www.cemkla.org

**워싱턴** \* 강창제 장로 / ckkang@cox.net / http://cemusa.org

##### <활동준비지역>

**익산** \* 김윤근 목사 / 010-5553-1091 / ezer3@hanmail.net /

**제주(준)** 김광중 전도사 / 010-9744-1477 / hymn4747@hanmail.net

광주·대구·울산·춘천은 서울기윤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보고**  
**활동계획#**

- 3/18(금) 07:30 1차 기윤실 상임집행위원회
- 3/22(목) 19:00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 3/25(금) 11:00 전국기윤실협의회 간사회의(대전)
- 4/1(금) 07:30 2차 기윤실 상임집행위원회
- 10:00 한기총 해체를 위한 토론회(청어람)
- 4/6(수) 공직선거법 개정반대 성명서 발표
- 4/12(화-13(수) 2기 코칭클리닉 목회자과정(충신교회)
- 4/15(금) 07:30 3차 기윤실 상임집행위원회
- 4/15(금) 15:00 전국기윤실협의회 대표자회의(청어람)
- 4/26(화) 18:00 “전·월세대란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송실대)
- 4/27(수) [재생종이캠페인]
- 교회별 종이 사용 조사 캠페인 시작
- 4/28(목) [회원실천운동] 기독교인들이
- 전·월세 값 동결을 선언합시다! 발표
- 5/6(금) 07:30 4차 기윤실 상임집행위원회
- 5/13(금) 10:00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세우기 세미나(청어람)
- 5/17(화) 19:00 IVF 학사회 초청 손봉호 교수 강연회 (IVF중앙회관)
- 5/20(금) 07:30 5차 기윤실 상임집행위원회(기윤실)
  
- 5/29(일) 17:00 미래교회포럼 기도회(분당샘물교회)
- 6/3(금) 07:30 6차 기윤실 상임집행위원회
- 6/17(금) 07:30 7차 기윤실 상임집행위원회
- 6/20(일)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 탐방1 (서울 마포, 경기 성남)

[탐방1] 서울 마포 신수동 사회적기업  
“마을 주인이 주인 되는 기업”

[탐방2] 서울 마포 염리동 작은교회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만드는 공동체”

[탐방3] 경기 성남 주민교회  
“빈민운동에서 생활협동조합까지”

6/21(화)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 탐방2(전북 임실)

[탐방4] 전북 임실 치즈마을  
“기독교정신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마을”

★ 탐방 신청 및 문의는 기윤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활동스케치**

**사무처 소풍 다녀왔습니다**



했습니다! (박제민 간사)

**2기 코칭클리닉 목회자과정**



에 관심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박진영 간사)

**“청춘, 안티트리블 보습 토크” 제4회 사회선교포럼**



리였습니다. 이들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폭풍성장 하도록 기윤실이 응원합니다. 짹짹(박진영 간사)

**2차원의 재발견-세상을 바꾸는 지도그리기 강연워크숍**

사무처 간사들은 3월 18-19일 양일간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2차원의 재발견-세상을 바꾸는 지도그리기” 강연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역사회의 정보를 웹 지도에 기록하는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기윤실 운동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 간사들이 되겠습니다.(박제민 간사)

4월 19일, 사무처 간사들이 봄맞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인사동에서 만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후원을 둘러본 뒤, 다시 인사동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마디로 잘 쉬었습니다. 이제 또 열심히 운동하

목회자리더십개발을 위해 4월 12-13일 충신교회에서 한국리더십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7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중 한 분은 “코칭클리닉을 통해 사역의 풍성함을 경험하시라”는 추천문까지 직접 써주셨습니다. 신뢰받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윤실 운동

5월 16일(월), 뜨거운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등록금과 주거문제, 취업과 경쟁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청년 ‘케어’하고 계신 분들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자

# REDISCOVERING VALUES

새로운 경제를 위한 핵심가치

## 가치란 무엇인가

경쟁, 탐욕, 불안...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자, 가치의 경제를 말하자.

-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빚을 내서 사는 것은 경제와 가정에 독이 된다.
- 광고들이 말하는 가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은 가치다.
- 가난한 이들을 향한 관심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일이다.
- 우리가 나누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충분하다.

“새로운 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혜와 희망이 가득한 책이다.”

마이클 샌델(『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선대인(『세금 혁명』 저자), 김정욱(『나는 반대한다』 저자),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추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시장지본주의가 처한 가치의 위기를 일깨운

짐 윌리스의 신작

박재혁 옮김  
신국 296면 | 14,000원



# 교회별 종이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본을 강타한 지진이 후쿠시마 원전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기후변화까지 염두에 둔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에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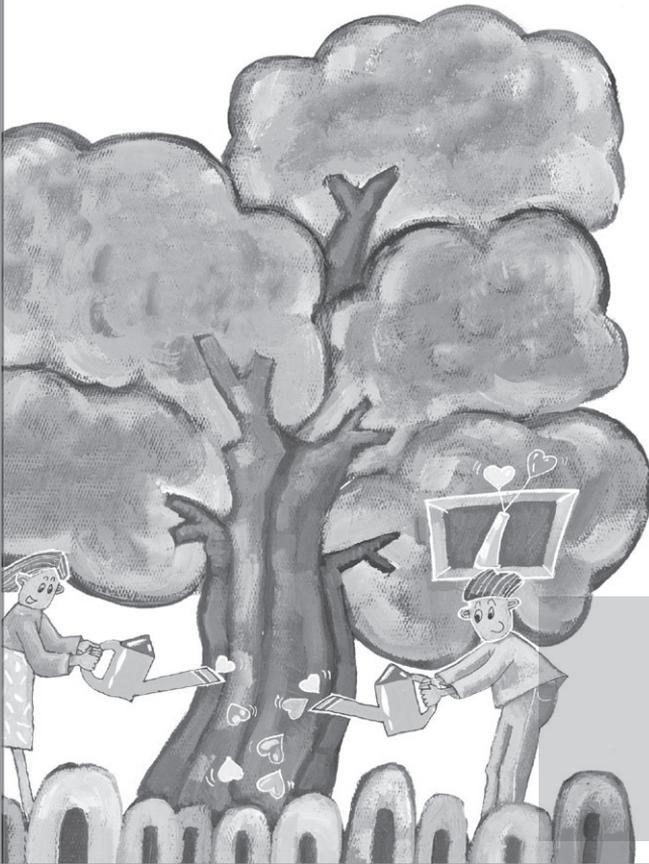
“우리 교회가 사용 중인 종이를  
재생종이로 사용하면  
1년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러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가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실천은 교회의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교회만큼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문서들은 되도록 재생 종이에 인쇄하는 것은 기후 변화 대책을 위한 작지만 가장 현실적인 교회의 실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운실은 환경문제를 교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현실 속에, 지난 2008년부터 재생 복사용지 및 재생종이 주보 사용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각 교회별 종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더 적극적인 재생종이 사용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은 거창한 영역이 아닌, 작은 것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교회별 종이 사용 현황 조사와 재생종이 사용캠페인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드림.



- ☑기간 / 6월 10일(금)까지
- ☑참여방법 / 기운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참여하신 분 중 20명을 추첨하여 **재활용 장바구니**를 선물로 드립니다.
- ☑기운실홈페이지([www.cemk.org](http://www.cemk.org))에 자세한 참여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